

01 교회소식

믿음과 순종의 모델

하나님의 벗이 된 아브라함의 삶에는 영적인 믿음 성장과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을 받는 지름길을 제시하는 무한한 보화가 담겨 있다.

02 생명의 말씀

참된 헌신을 하려면

하나님 보시기에 자신의 유익을 따라 수시로 변개하는 마음과 조건과 상황에만 맞추려는 마음이 없어야 참된 헌신을 할 수 있다.

03 기획특집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최고의 선물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위해 마련해 주신 천국에서는 식물과 동물들조차 우리를 반기며 말할 수 없는 행복을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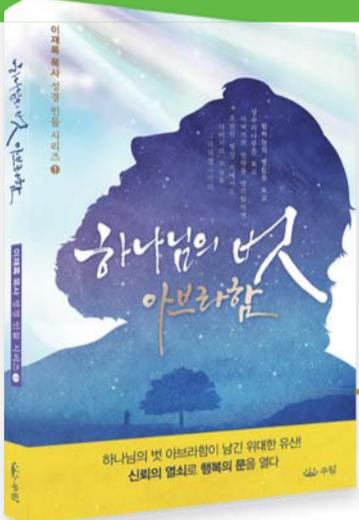
04 간증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연약한 자녀를 통해 하나님의 섬세하신 사랑을 체험한 뒤 영혼들을 섬기며 참 행복 속에 살아가는 김현주 전도사의 간증.

# 만민뉴스

제706호 2015년 10월 4일 (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 이재록 목사 100번째 저서 『하나님의 벗 아브라함』

###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 배우는 하나님의 사랑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인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였다. 또한 믿음의 조상으로서 영혼이 잘될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받아 모든 믿는 자의 표상이라 할 만큼 믿음의 측면에서 심판의 기준이 될 정도로 온전한 믿음을 소유했다.

우리는 그가 받은 축복에 관심을 갖기에 앞서 그가 하나님 앞에 내보인 믿음과 신뢰의 행함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과연 아브라함은 어떠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으며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기에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을까?

교회 창립 33주년을 맞아 당회장 이재록 목사는 전 성도가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받아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10월 10일, 100번째 저서 『하나님의 벗 아브라함』을 발간한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 참된 믿음이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며 그가 받은 축복을 우리 모두에게도 주기 원하신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축복의 언약을 받은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신속히 육신의 생각을 깨뜨리고 믿음의 언단을 통과해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순복하는 신앙을 소유하며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 받을 수 있다.

이재록 목사의 창세기 강해 설교 중 12장부터 25장까지의 아브라함에 관한 분야를 발췌해 ‘신뢰와 순종’, ‘희생과 순복’, ‘사랑과 축복’ 세 파트로 나눠 장별로 기획 편집했다. 이 책은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아브라함의 신앙뿐 아니라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조카 롯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아내 사라,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순종하는 독자 이삭을 통해서도 참된 신앙에 대해 깨닫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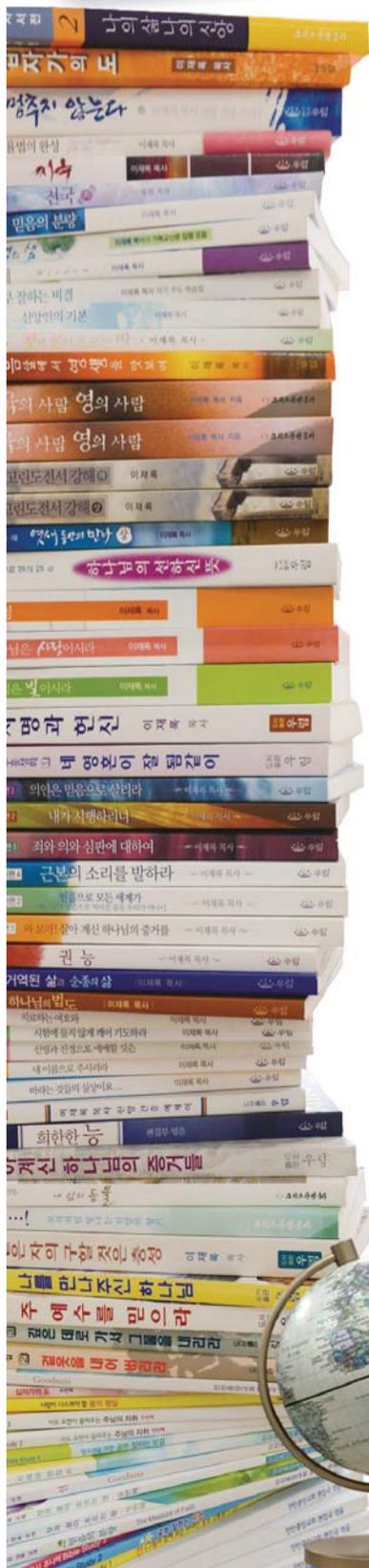
무엇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씨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시련을 통과해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고 믿음의 조상이 되는 과정은 한 편의 드라마를 보는 듯 흥미진진하다.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시험 앞에서도 아버지 하나님께 ‘아들을 번제로 드리는 것, 그것조차도 아버지의 진한 사랑임을 느꼈기에 오히려 나를 믿어 주시는 아버지의 마음에 눈물이 났나이다. 늘 이 아들을 생각하사 복 주시기만을 원하셨던 아버지의 사랑이 오늘 날 이 아들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심이니이다.’라고 고백한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고자 허락하신 시련을 온전히 통과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서 복의 근원,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으며 영육 간에 넘치는 축복을 받는다. 노년에는 회춘해 여섯 아들을 더 낳았으며 소천한 후에는 가장 좋은 천국 새 예루살렘 성의 높은 서열에 이르러 장차 백보좌 대신관 때 하나님을 보좌하는 사명도 맡게 된다.

이 책의 사이사이에 ‘살렘 왕 멜기세덱은 누구인가?’, ‘사람 셋을 보았다는 말씀의 의미’ 등 아브라함의 삶을 깊이 이해할 수 있게 해 주는 8개의 ‘플러스’를 수록해 영적인 심오함을 더해 주고 있다. 10월 17일부터는 교보문고, 영풍문고 등 시중 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는 만민중앙교회를 개척할 때부터 문서를 통한 세계 선교에 힘써왔다. 1987년 4월 17일, 간증수기 『죽음 앞에서 영생을 맛보며』를 시작으로 발간된 그의 저서들은 전 세계 독자들을 위해 다국어로 발간됐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섭리를 담은 대표적 설교집 『십자가의 도』가 57개 언어로 발간된 것을 비롯, 다양한 장르의 신앙서적들이 수많은 언어로 번역 발간되고 있다.



감사와 기쁨의 향을 함께 올려드릴 주인공으로

# 초대합니다

교회 창립 33주년 기념예배 및 축하행사

창립행사: 2015. 10. 11 (주일) 오후 3시 / 전야행사: 2015. 10. 9 (금) 오후 11시



당회장 이재록 목사

“...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요한계시록 2:10)

# 참된 헌신을 하려면

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지요.

이 제단에도 큰 연단의 시간들이 있을 때 생명 다해 교회와 목자를 지키겠다고 사람들이 떠나간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의 연단이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도 자신에게 유익이 되지 않아 보아니 아내 마음이 변질돼 버린 것입니다.

심지어는 자신에게 맡겨진 양 떼들까지 버리고 떠난 주의 종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충성하겠다고 고백을 뒤로 한 채 떠나 버린 것입니다. 설령 교회를 훼손하지 않았어도 하나님 은혜를 크게 입은 제단을 저버린다면, 지난날의 믿음이 참이 아니며 그동안 쌓은 사랑과 믿음, 소망을 전부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개함은 늘 점검해야 할 항목입니다.

특히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은 더 자주 쉽게 변개함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자신의 마음, 취향, 기호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맞춰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의 종이려면 양 떼들에게 섬김과 존중을 받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양 떼들을 위해 무조건 희생하고 내어주어야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때때로 자신이 얼마든지 취할 수 있는 자유와 권한도 포기해야 하고 내 시간, 내가 누리고 싶은 것, 내 생활도 가까이 내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일꾼이라면 항상 ‘하나님 나라 전체에 유익이 되는 길은 무엇일까?’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자기가 속한 곳만 칭찬받기 원한다면, 뒷분으로부터 인정받을 때는 충만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열정이 식거나 아내 낙심하고 지치지요.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다가도 다른 사명이 더 인정받는 것 같으면 자신의 사명을 소홀히 한 채 다른 사명 받기를 바라는 마음이 됩니다. 사명이 크든 작든 아멘 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 선교를 다니며 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많은 양 무리를 낳았습니다. 양 떼들에게 공평을 받기보다는 천막을 지어 자비량으로 선교했지요. 그러면서도 핍박과 고난은 또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사도행전 20장 22-24절에 “보라 이제 나는 심령에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

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고백했지요. 매를 맞으며 감옥에 갈 줄을 알면서도,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될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 뜻이라면 아멘 하며 갔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자신의 안위를 먼저 구하기보다는 두고 온 교회와 양 떼들의 형편을 걱정했지요.

사람들은 처음 사명을 받으면 주님과 교회, 영혼들을 위해 힘이 되고자 합니다. 나름대로 꿈과 비전을 가지고 “주님 오실 때까지 잘 감당하며 하나님 나라에 힘이 되겠습니다.” 고백하지요. 그런데 내 유익에 맞지 않거나 내 힘들과 연단을 생각해 변개한다면 지난날의 열심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사명자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정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먼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 2. 내 조건과 상황에만 맞추려 하지 않는 지 점검해야 합니다

때로는 자신이 원하지 않는 일이나 자기 능력 이상의 일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능력이 부족하다고 핑계 대며 잘하는 일, 하고 싶은 일만 해서는 안 됩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힘은 세상 지식이나 육적인 재능, 물질 등에서 오는 것이 아니지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마음 중심에서 구한다면 큰 능력의 일꾼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더욱이 영혼을 갈무리하는 사명을 맡은 분들은 알곡의 영혼들도 살피지만 오히려 상하고 연약한 심령, 강박한 심령들을 살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설령 하나님 일을 할 때에 원치 않는 일을 맡아도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를 먼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내 믿음이나 형편, 꿈과 비전, 능력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지시하거나 명령하시지 않습니다. 다만 내 조건과 상황에 맞추려 하지 말고 가

장 좋은 것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바를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 주변 일꾼들에게 “있는 곳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며 다른 사명도 침노하라.”고 부탁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지 더 많은 사명을 감당하라는 뜻만이 아니었습니다. 영혼을 관리하는 사명을 감당할 때 목자의 마음을 더 이해하고, 교회와 영혼들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의 축복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더 마음을 넓히지 않고 여전히 자기 한계 안에만 머물러 있다면 이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 있어서 더 큰 몫은 감당하지 않겠다.”고 고집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자신의 모습이 화려하게 돋보이는 무대가 있는 반면 이름도, 빛도 없이, 묵묵히 감당해야 할 사명도 있습니다. 남들이 알아 주지 않는 곳 은일을 감당해도 그 공이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돌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여전히 동일한 마음으로 헌신할 수 있는지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것과는 다른 일이 주어지거나 사모하며 기도하던 것과 다르게 인도받을 수 있고, 열심히 충성한다고 했는데 애매한 말을 듣거나 낮은 데 처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때라도 오직 무익한 종(눅 17:10)의 마음으로 헌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 경작의 오랜 세월 동안 참 자녀를 얻기 위해 참고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헌신도 결국은 사랑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들의 연약함을 아셨기에 인생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그들이 죄로 물들어 갈 것과 이로 인해 마음이 아플 것도 아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오래 참고 기회를 주시면서까지 한 영혼도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끝내는 사랑하는 아들을 죄의 대속물로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써 그 사랑을 다시 한 번 확증시켜 주셨습니다(롬 5:8).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참된 사랑의 마음으로 헌신하며 귀히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1. 내 유익에 따라 수시로 변개하는 마음이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할 욕의 속성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변개함’입니다. 겉으로는 크게 악을 행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 변개함이 싹트면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배신으로까지 나오게 됩니다.

가롯 유다가 그러했습니다. 그는 예수님 곁에서 기사와 표적을 많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명하시니 죽은 자가 살아나고 소경 된 자가 눈을 뗐습니다. 가롯 유다는 이러한 예수님을 보면서 자신도 언젠가는 예수님으로 인해 특권을 누리고 영예를 얻을 것이라고 생각했지요. 그러나 상황은 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함하고 핍박하는가 하면 잡아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예수님의 입지가 불리한 상황으로 몰리면서 가롯 유다의 마음이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자신에게 돌아오는 이득이 없을 것 같으니 결국은 사단의 사주를 받아 스승을 파

**만민뉴스**  
등록 다-1840(1989. 7.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인쇄인 이호영

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www.manminnews.com

**만민중앙성결교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29  
대표전화 02) 818-7000



-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 1번 출구에서 횡승 5536번 시내버스(교회앞 하차)
  - 30분간격 교회버스 이용
  - 2, 3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거리
- 7호선 남구로역에서**
  - 2번 출구에서 구로남초등학교 방향, 도보 10분 거리
- 시내버스**
  - 5536, 5615번(교회앞 하차)
  - 503, 504, 571, 652, 5618, 5619, 5626, 5630, 5712, 5744번(디지털단지 오거리 하차)
- 교회버스**
  - 각 지역별로 서울시 및 경기도 일원에 운행
  - 문의 : 차량국(02)818-7391~3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저녁예배	3:00 PM
주일 빛과소금성교회 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성교회(요식업) 예배	11:00 PM
금요철야예배	11:00 PM
수요예배	7:00 PM
화요찬양예배 [청년·가나안]	8:00 PM
수요찬양예배 [빛과소금]	9:00 PM
토요찬양예배 [중·고등부]	4:00 PM
토요찬양예배 [아동부]	3:00 PM
다녀오실 때 기도회 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대만 정기구독 시 우송료만 정기구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manminnews.com 070-8240-2074

우리은행 1002-253-985877 (예금주 이경진)

# 우리를 행복하게 해 주는 천국의 식물과 동물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예비하신 최고의 선물은 영원한 천국이다.  
 하나님을 닮아 수정같이 맑고 아름다운 마음을 이룬 사람은 천사들의 수종을 받으며 영원한 천국에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다. 심지어 천국에서는 식물과 동물들까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섬기면서 행복을 준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가 되어 천국에서 가장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삶을 영위하기 바란다.

## 01» 하나님의 자녀가 다가가면 독특한 향기를 발하며 인사하는 천국의 식물들

천국의 식물도 이 땅에서처럼 무수히 많은 종류가 있다. 이 땅의 식물은 뿌리로 물과 양분을 흡수하고 잎으로는 광합성 작용을 함으로써 자라고 꽃도 피우며 열매를 맺는다. 그러나 천국의 식물은 이 땅의 식물과 구조는 같지만 스스로 어떤 작용을 해서 사는 것이 아니며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영원히 유지한다.

또한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잎이 시들지 않으며 꽃이 지거나 열매가 떨어지지도 않는다. 열매를 따면 바로 그 자리에서 다시 열매가 나와 항상 과일나무에는 과일이 맺혀 있고, 꽃도 마찬가지로 꺾으면 그 자리에서 다시 피어난다.

꺾인 꽃도 시들지 않으며 처음 꺾을 때의 싱싱한 모습 그대로 유지한다. 즉 변하거나 썩지 않으며 그 자체의 빛깔과 형태를 유지하는 것이다. 더구나 식물들마다 상큼한 향, 달콤한 향, 고상한 향 등 독특하고 좋은 향이 있다.

아무리 향을 발산한다 해도 그 향이 떨어지지 않고, 향의 농도도 조절돼 진한 향을 멀리까지 발산하기도 하고 은은한 향을 내기도 한다. 그래서 향을 맡은 것만으로도 전신에 생기가 돌고 온몸이 더 충만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천국의 꽃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다가가면 경외하고 정중히 맞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꽃봉오리를 오므렸다가 활짝 피면서 향기를 발산함으로써 마치 "주인님! 어서 오세요. 제게 다가와 주셔서 너무 기뻐요."라고 말하듯이 영접한다.

또한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꽃들은 리듬을 타고 움직이며 향을 강하게, 혹은 약하게냄으로써 찬양하기도 한다. 만일 주인이 바람에 꽃잎이 흩날리는 장면을 보고 싶어 하면 스스로 꽃잎을 날려 그 마음을 기쁘게 해 준다.

천국의 처소가 어디이며 집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 식물들이 발하는 향과 거기에 담긴 의미가 다른 것도 볼 수 있다. 이는 천국의 동물도 마찬가지이다. 예를 들어, 장미라면 낙원의 장미는 여러 꽃 중의 하나이지만,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 성도 집에 있는 장미라면 그 향에 집 주인의 마음이 담긴

다. 어떤 손님이 왔을 때 장미꽃이 그 향을 발산함으로써 집 주인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이다.

또한 새 예루살렘 성에 있는 모든 식물이 천국의 다른 처소에도 다 있는 것은 아니다. 새 예루살렘 성에서 낙원으로 갈수록 종류가 한정되고, 같은 종류의 식물이라 할지라도 그 식물을 활용할 수 있는 권한이 제한된다. 그 질 또한 달라서 잔디밭이 낙원에도 있고 새 예루살렘 성에도 있지만 앉았을 때의 포근함과 그 빛깔이 다르다.

## 02» 하나님의 자녀들을 반가워하며 좋아하는 천국의 동물들

천국의 동물은 이 땅의 동물보다 약간 더 크고, 대체로 온유하며 순종적이다. 짐승의 털과 새의 깃털에는 영롱한 빛이 나며 은은한 향내가 난다. 사자도 천국에서는 온순하며 금빛 찬란한 갈기를 지니고 있다. 물고기도 비늘과 지느러미 빛깔이 매우 아름답고 때에 따라 바뀌는 종류도 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면 너무나 반가워하고 좋아해서 주인의 말을 잘 따르며 그 마음을 헤아려서 어떻게 하면 귀여움 받을지를 알아 재롱을 부리는 등 주인을 기쁘게 한다. 이는 혼이 있어서 생각하고 판단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영의 공간 속에서 그들의 사명을 감당할 뿐이다. 천사들이 하나님 명령에 따라 움직이듯이, 동물도 천국에 있는 영적 존

재로서 그들의 사명에 의해 존재하고 움직이는 것이다.



천국에는 무수히 많은 종류의 동물과 새, 물고기가 있는데, 이 세상에 없는 것도 많고 이 세상에는 있지만 천국에 없는 것들도 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가증하다', '부정하다' 하신 동물들이다.

레위기 11장에 짐승, 새, 물고기, 곤충 등 하나님께서 어떤 동물을 가증하게 또는 부정하게 여기시는지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다. '가증한 동물'은 하나님을 대적해 타락한 그룹들의 형상을 닮은 동물이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용과 그의 사자들이 나오는데, 이들은 루시퍼가 하나님을 대적할 때 함께 반란을 도모한 무리이다. 여기서 용의 사자들이란 용의 수하에 있던 그룹들 중의 일부로서, 천사가 사람의 형상을 입은 것과 달리 동물의 형상을 입은 영적인 존재이다.'

원래 용과 그의 사자들은 각종 아름다운 형상을 입은 그룹이었으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타락한 이후에 흉측한 짐승의 모습으로 변했다.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그룹의 형상을 닮은 동물들을 '가증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부정한 동물'은 원래 지음 받을 당시의 토질에 나쁜 속성이 담겨 있던 일부 동물들을 말한다. 가령, 어떤 동물은 간사한 성질이 있고 어떤 동물은 포악한 성질이 있으며 어떤 동물은 탐욕스러운 성질이 있다. 성경에서는 구체적으로 악대(낙타), 토끼, 돼지, 쥐, 족제비, 도마뱀 종류 등을 언급한다.



주요 프로그램 안내	이재록 목사의 생명의 말씀	GCN TV설교	예능 프로그램	해외성회 및 교육
2015.10.4~10.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천국 22-26</li> <li>신뢰</li> <li>2차 영혼육 4-8</li> <li>선</li> <li>창세기 강해 21-25</li> <li>요한계시록 강해 58-62</li> <li>믿음을 처방하시니 14-18</li> <li>성령의 음성주관인도 8-14</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열매 (이수진 목사)</li> <li>지혜 1 (이미영 목사)</li> <li>영의 세계 45 (이희선 목사)</li> <li>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신동초 목사)</li> <li>열재앙 21 (정구영 목사)</li> <li>양선 (김수정 목사)</li> <li>영의 공간 (천우진 전도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알콩달콩 어여쁜 울동 44</li> <li>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9</li> <li>창조와 과학 15</li> <li>내 마음의 찬양 19</li> <li>옛날 옛적에 14</li> <li>English 10</li> <li>즐거움 요리 6</li> <li>모두 드려요 36</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온두라스 연합대성회 2</li> <li>믿음으로 걸어온 길 10</li> <li>회상 [시즌2] 4</li> <li>2015 기관장 교육</li> </ul>

**GCN TV** 채널 **kt olleh tv 882번**

# “낮아진 자를 높여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김현주 전도사 (50세, 3대대 31교구장)



저는 1남 6녀 중 넷째 딸로 태어났습니다. 모태 신앙으로 어려서부터 새벽 기도하시는 어머니를 보며 성장했기에 연세대학교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한 후 영어교사로 재직하면서부터 참된 교사가 되기 위해 고민하기도 했습니다.

### 연약한 자녀를 통해 하나님의 섬세하신 사랑을 체험하고

1992년 5월, 남편 홍영식 장로님과 결혼해 첫 딸을 낳았습니다. 그 후 1997년 6월, 아이를 키우며 교사생활을 하던 중 과로로 둘째 아이를 7개월 반 만에 조산하게 됐지요.

1.3kg으로 태어난 아들은 인큐베이터에서 보내야 했는데 출생 시 뇌 손상을 입은 상황이었습니다. 인간의 한계 앞에서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자신만을 위해 살아온 것을 용서해 주세요! 성공만을 추구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출산 바로 다음 날부터 새벽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두 달쯤 지나서 동생 김현숙 권사로부터 이재록 목사님의 간증수기 『죽음 앞에서 영생을 맛보며』를 받았는데 온몸에 전율을 느끼며 밤새 탐독했지요. 아들의 질병을 치료받을 수 있다는 희망을 품고 만민중앙교회를 찾았습니다.

그 당시 저희 가족은 남편의 박사 취득 후 연수과정을 밟기 위해 1997년 10월, 아픈 아이를 데리고 프랑스 유학길에 올라야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아이는 정상적인 성장을 하지 못했고 많이 울며 고통스러워했지요.

이에 한국에 잠시 들어와 1998년 5월 ‘제6회 이재록 목사 2주 연속 특별 부흥성회’에 참석했습니다. 설교를 통해 많은 은혜를 받으며 지난날을 회개할 수 있었지요. 이어 당회장님께 기도를 받았는데, 아들은 울음과 고통이 멎고 많이

### 뇌 손상을 입고 태어난 첫째 아들을 통해 생명의 제단으로 인도받아

### 충격적인 모 방송의 왜곡편파 보도 허위 사실임이 밝혀지고

### 생명의 말씀으로 지식의 틀과 교만 깨어져 영혼들을 섬기는 주의 종으로

회전됐습니다. 초점이 흐렸던 눈동자가 정상이 되고 건강해지는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한 것입니다. 저희는 다시 프랑스로 돌아가 연수과정을 마치고 그해 10월에 귀국해 우리 교회에서의 행복한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1999년 1월,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아들을 잉태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첫째 아들은 점차 기력이 약해지더니 하늘나라로 갔지요. 처음엔 부모로서 말할 수 없는 슬픔이 있었지만, 건강한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섭리와 섬세하신 사랑을 깨닫고 감사드렸습니다.

### 모 방송의 왜곡편파 보도의 시험 후 믿음이 굳건해져

1999년 5월, 제 의사와 전혀 상관없이 모 방송에 출연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새 생명이 잉태된 지 5개월째 되는 어느 날, 어떤 자매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조카가 뇌성마

비인데, ‘제7회 이재록 목사 2주 연속 특별 부흥성회’에 참석해 치료받고자 하니 도움을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며칠 뒤 그 자매가 집에 왔는데 얼굴 표정이 어둡고 큰 가방을 메고 있었지요. 저는 전도할 마음으로 그동안의 일을 전해 주었고, 당회장님을 통해 나타나는 권능의 역사를 마음에 믿고 부흥성회에 참석할 것을 권유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지인으로부터 “빨리 TV를 켜 보세요! 집사님이 나오고 있어요!”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 순간 몰래 카메라였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지요.

저는 당회장님의 기도를 받고 아이가 치료받아 건강하게 살다가 선천적으로 약하게 태어난 연유로 천국에 데려가시고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간증했습니다. 그런데 방송에 이 내용은 전혀 나오지 않고 마치 아이가 기도받고 죽어서 교회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왜곡 보도된 것입니다.

남편과 저는 일방적이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재당한 배신감에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왜곡편파 보도로 아무 잘못 없이 큰 어려움을 견뎌야 했던 교회와 성도, 그리고 무엇보다 오직 선으로 행하시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영혼들을 사랑으로 품어가는 당회장님의 모습을 보며 능히 이겨낼 수 있었지요.

결국 허위 사실이 밝혀졌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2000년부터 세계 선교의 문을 활짝 열어 우리 교회가 더욱 크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 영육 간에 축복을 받아 주의 길을 가는 참된 행복

더욱 감사한 것은 이 과정을 통해 제 지식의 틀과 교만이 깨어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변화됐고, 세상의 좋은 것들을 누리려 했던 세상에 대한 미련이 끊어졌습니다. 남은 인생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는 다짐과 함께 제 마음은 영원한 분향인 천국으로 향하기 시작했지요.

당회장님께서 무수한 금식과 기도로 풀어 주신 주옥같은 말씀이 담긴 『십자가의 도』, 『믿음의 분량』, 『영혼육』, 『천국』, 『십계명』 등을 읽으며 하나님 뜻을 알아갔습니다.

그 사이 저희 가정은 남편이 대덕연구단지 연구원이 돼 2001년부터 대전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5년이 지난 뒤에는 서울교육대학교 과학교육과 교수로 임용되는 축복을 받아 다시 본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지요.

저는 2010년, 신학교에 편입해 영혼들을 살리는 주의 종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제 마음속 깊이 내재된 비진리를 발견해 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셨지요. 화평함을 좇는 것 같지만 내 생각으로 상대를 판단하거나 이유와 변명을 하며 불순종하는 마음을 벗어버리고, 자기적인 의와 틀, 교만, 자존심을 깨뜨려 겸비하게 낮아지니 올해 6월, 영의 마음을 이루는 축복도 받았습니

다. 작년에 당회장님의 기도를 받고 우수한 성적으로 고려대를 합격한 딸 하은이와 하나님의 선물 대법이는 나사렛성가대와 기관 임원으로 섬기고 있지요.

절망 중에 만나 주시고, 오히려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주일 대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침례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부산만민성결교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 168 ☎070-8223-4191~4, 010-4182-4194
- 서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대로 103, 백성B/D 7층 ☎051326-1537, 010-7213-6207
- 해운대만민교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광어골로 76, 3층 ☎010-8020-7333
- 대구만민교회 대구광역시 북구 칠성남로 50 ☎053356-4717, 010-4575-1934
-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26 ☎042625-1205, 633-6283, 010-5434-3927
-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하남대로 550번길 39-33 ☎062513-2455, 010-8888-0727
- 새광주만민교회 광주시 서구 차평로 60 302호 ☎062372-1002, 010-2290-7779
- 동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월동로 82-10 ☎062266-7001, 010-3637-6443
- 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남구 동천로355번길 12-1 ☎052257-5011, 010-2485-1537

- 남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산전길 9 ☎052291-2253, 010-2505-1537
- 안성만민교회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조말길 64 ☎031652-9981, 010-3278-7712
- 연천만민교회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백원로 234번길 25-4 ☎031835-1717, 010-2634-5478
- 천안만민성결교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1길 5 ☎041577-7077, 010-3447-7077
- 공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변영1로 34 3층 ☎041881-7000, 010-3030-7025
- 서산만민교회 충남 서산시 잠동1길 24 ☎041667-4721, 010-2781-2073
-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변영로169번길 22 ☎041546-1537, 010-2672-0244
- 사랑만민교회 충남 계룡시 금암로 135 ☎042841-0091, 010-7195-1099
-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326번길 32 ☎043293-7077, 010-9271-7017
- 새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청원구 울봉로176번길 62 ☎070-4823-7173, 010-8291-7173
-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연수로 7 두진상가 201호 ☎043845-0617, 010-2278-0641
- 마산만민성결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무학로 654 ☎055247-8891~2, 010-3559-9067

- 밀양만민교회 경남 밀양시 시청서길 36 ☎055353-9192, 010-9382-2073
- 진주문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인길 17, 2층 3호 ☎055852-5815, 010-9196-3927
- 김해만민교회 경남 김해시 김해대로 2421 3층 ☎055322-7055, 010-6605-2254
- 창원만민교회 경남 창원시 성산구 연덕로184번길 28, 5층 ☎054289-9522, 010-9331-4405
- 통영만민교회 경남 통영시 광도면 남해안대로 861 ☎055648-9107, 010-8433-8891
- 거제만민교회 경남 거제시 신부로 3길 8 ☎055687-6882, 010-3800-2048
- 경주만민교회 경상북도 경주시 백률로 76번길 45-1 ☎054748-5777, 010-3747-5777
- 포항만민성결교회 경북 포항시 북구 중앙로 177 4층 ☎054281-9367, 010-8433-2073
-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09-15 3층 ☎054281-2468, 010-9773-7017
- 구미만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금오대로6길 30 ☎054920-4512, 010-3343-1537
- 여수만민성결교회 전남 여수시 둔덕3길 11-2 ☎061652-8311, 010-2325-1228
- 목포만민성결교회 전남 목포시 용당로 281, 종원빌딩 301호 ☎061284-3133, 010-2629-8275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례면 해례대로 167-82 ☎061452-7443, 010-3153-1723
- 순천만민교회 전남 순천시 조례동윗길 27, 2층 ☎070-4028-2515, 010-2536-2515
- 전주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절길 30 ☎063223-9991, 010-4202-1537
-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평동로2길 6, (3동2층) ☎063853-0675, 010-3637-0263
- 군산만민교회 전북 군산시 상나운안길 11, 3층 ☎063468-7027, 010-7777-7027
- 춘천만민교회 강원도 춘천시 호자로 113 3층 ☎033261-4217, 010-2759-7017
- 원주만민교회 강원도 원주시 개운5길 57 (개운동) ☎033766-1535, 010-9108-2073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미시령로 3383 (3층) ☎033637-0271, 010-7733-1327
- 강릉만민교회 강원도 강릉시 하평3길 11, 3층 ☎033641-3790, 010-6334-7750
- 제주만민교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도9길 55-4 ☎064745-0675, 010-2468-2251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172 ☎02995-9951, 010-2276-1014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평안대로 22, 은성빌딩 3층 ☎031485-9143, 010-6395-0143
- 인천지성전 인천광역시 남구 석정로 424, 3층 ☎032489-3766, 010-7103-4097
- 김천지성전 인천시 서구 완정로 162 ☎010-7133-9770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아람로 95 ☎010-7103-4097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촌로 18, 아원B/D ☎031905-2419, 010-2276-1014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 46, 광명빌딩 5층 ☎031552-7397, 010-8163-1537
- 강동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508, 호우빌딩 지하 ☎02489-3766, 010-7103-4097
- 부평지성전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 112, 5층 ☎010-7133-9770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200번길 43, 2층 ☎031202-8480, 010-8331-1136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3, 2층 ☎031840-2906, 010-8163-1537